

북 72-1-14

~~귀의비~~

자료번호	31-
제 호	100

귀의비

보안용

~~북한군사연구소~~

南北接觸과 關聯 蘇聯의 對韓政策의

보 판 용 展望과 우리의 對策研究  
 (귀의비) 5/5

1972年 12月 日

북로동당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8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8년 12월

발주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명명 : 통구문지연구소

발주처명 :

의 일 자 : 통 구

위 령 : 통 구 문 지 연구 소



# 目 次

I. 序 論 .....	3
II. 南北關係의 發展期 .....	6
III. 南北關係의 發展期의 變遷 .....	14
IV. 南北의 經濟發展의 比較와 考察 .....	21
V. 南北關係의 改善 爲하의 對策 .....	32
VI. 南北關係의 發展, 구상되는 南北의 經濟發展 展望 .....	44
VII. 結 語 (附 註) .....	51



한 것이며, 武力衝突의 懸念이 커져 가는 것은 그중 西大共産國家의 影響

이 커져 가는 것이다. I. 序 論

제2차 世界大戰後의 國際關係에 있어 蘇聯의 影響은 著하다. 北緯의 北緯

우리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들의 既存勢力均衡 關係에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後의 國際關係에 있어 蘇聯 支配下의 共産勢力圈의 急激한 膨脹으로 생긴 理念 中心의 兩極 對立 體制는 東·西 洋 諸國 地域에서 共産勢力의 先攻으로 小對決을 試圖하다가 共産 宗主國의 情勢 認識과 判斷의 變化로 暫次 共存關係로 方向을 轉換하여서 60年代를 거쳐 70年代 初에 이르는 사이에 中蘇 理念 紛爭에 따른 中共의 独自の 勢力 強化에 따라 三極體制로 浮現되었고 東方에서의 日本, 西方에서의 西強等의 적어도 外見上의 独自の 外交活動으로 보아 이제는 五極體制 時期의 到來마저 생각하게 한다.

中共 日本 등이 強大國으로 國際舞臺에 登場하므로써 생긴 板東 地域에 있어서의 勢力關係의 變化와 美國의 <닉슨·독트린>發表는 從來의 冷戰下 全적으로 美國에 依存하는 集團安全保障體制 속에서 安穩해오던 亞細亞, 太平洋 諸國을 特히 크게 威脅하게 되었으며 美國, 中共間의 和解, 그 뒤를 이은 日本의 性急한 對中共 國交樹立 등은, 그들의 不安을 거의 絶頂에까지 이르게 한 感이 있다.

共産主義의 宗主國을 自처하는 蘇聯이 그 自体가 先頭에 서서 普遍的 共産主義를 分派的 共産主義로 轉化시켰으며 思想과 그 實踐으로서의 共産主義的 普遍主義가 共産主義的 教條主義의 域이 되어버렸고 1960年代 70年代의 共産主義의 統一이란 것이 無意味



한 것이며, 武力衝突의 頻發에까지 이른 것은 兩大共產國家의 紛爭이 거저없는 事實이라 할지라도 또 蘇聯과 中共이 共に 對美國 對日本 關係에 있어서의 自國의 利害關係를 考慮하여 北韓의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 使用을 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든 條件들은 北韓政權의 暴動을 制止하기에 必要的 하나 充分한 것은 될 수 없다.

60年代初에 들어와서 中蘇紛爭의 激化에 따라 이른바 兩大兄弟國 사이에서 中立을 지키면 北韓政權은 蘇聯의 軍事援助 要請 不応과 對美接近에 不安과 不滿을 느낀 結果 中共路線에 接近하여 核裝交渉과 關聯하여 蘇聯을 非難하는 同時에 所關 四大軍事路線 推進에 依한 國防力 強化政策을 決定 発表하고 自體의 對蘇關係를 極度로 惡化시키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北韓의 軍事力 強化, 對大韓民國 侵略政策은 冒險主義的 中共의 立場으로 볼 때에는 鼓舞勸諭할 만한 것이었음이 事實이었으나 蘇聯의 國利를 爲한 對美 平和共存 政策과 相融되는 限에 있어서는 決코 容納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60年代 後半 以後로 蘇聯의 對北韓 關係가 好轉되고 그 影響力이 漸次 增大되었으며 특히 美蘇 美中共間의 實利追求에 따른 平和共存을 爲한 接觸은 越南戰爭을 進行하고 있음에도 不拘 하고 또 中間에 斷絶은 있었으나 成果를 거두게 되어 美舍南國 政府는 制限될 것이기는 하지만 中共으로 하여금 門戶를 열게했고, 이어 蘇聯과 侵略被武器制限에 合意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모든 事變의 進展過程은 大韓民國의 國力增大를 基盤으로 한 對美 經濟力競爭方式의 轉換과 함께 作用하여 韓半島에서 南北宗十字會談의 開始를 可能케 했다.



赤十字 予備會談 開始로 序幕을 올린 南北接觸은 마침내 7.4 共  
同聲明 發表로 大韓民國政府의 積極性과 主權性을 象徵하면서 이제  
相當한 急進을 보이고 있다. <對話없는 對決> 時代에 大韓民國  
의 安全을 保障했던 諸般 情勢는 크게 變化였으니 이미 大韓民國  
의 依他的인 生存方式은 許容되지 않는다. 이제 <對話있는 對決>  
時代에 主動적으로 突入한 大韓民國은, 對話 相對方의 本質과 體制  
그리고 그 行動方式으로 보아 日本의 平和狀態를 前例로 한 西歐  
的 國家體制나 行動方式이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實히 認識하  
게 되었다. 憲法改正에서 出發하여 그 具體化 作業으로 現今 着  
工 進行中인 모든 措置는 이러한 認識에 立脚한 國家 生存을 爲  
한 體制整備 行爲로서 이에 依하여 民國은 안으로는 制度와 運用  
面에 있어서의 모든 脆弱性을 解消하고 國力을 더욱 能率的으로  
組織 強化할 것이며, 밖으로는 對外活動에 있어 自主性과 機動性을  
發揮하여, 對決에서 勝利를 保障하는 高地를 先取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祖國統一原則으로 合意된 外勢依存 및 外勢干涉 排除의 自主性  
原則은 大韓民國과 北韓의 各己의 傳統的 友邦들과의 紐帶를 弱화  
하는 要因으로는 理解될 수 없다. 우리는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突利追求 脫離念 傾向에 便乘한 北韓側의 友邦 自由諸國에의 滲透  
를 銳意 警戒하는 反面, 傳統的으로 北韓의 最大 背景勢力이 되어  
은 蘇聯으로 代表되는 東歐共產諸國家들과의 關係 改善 努力을 더  
욱 積極化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現 時期에 있어 急進度로 進展되어가는 南北  
接觸의 現況에 立脚하여, 南北對話의 進展은 우리의 對蘇關係 改善  
의 可能性을 더욱 크게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對蘇關係 改善의



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南北對話의 成果는 우리에게 더욱 有利하게 나타나리라는 認識에서 出發하여, 蘇聯의 對韓政策을 固顧 屢 變하고, 우리의 對策 卽 對蘇 接近 積極化 方案을 摸索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努力은 國際舞臺에서의 民國의 地位를 改善하려는 維持課業의 重要한 一翼을 担當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體制下에서는 加一層의 進展을 期約해야 할 事業인 것이다. 다만 研究者에게는 좀 더 時間的(精神的) 余裕과 物質的(財政的)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







## II. 南北接觸의 諸段階

今年 2月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지금까지 美·蘇兩國間에 依해서 掌握되어오던 世界主導權을 美·中共이 (거기에 日本 및 西歐가 附加되어) 나누어가지게 되므로서 國際關係는 多極的인 秩序와 協調體制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解放後부터 오늘날까지 東西勢力의 影響을 가장 敏感하게 받아들인 우리 韓半島 역시 이러한 協調體制와 平和的 <무드>를 타고, 最近 우리 民族의 오래 동안의 宿願이었던 南北統一을 위한 民族對話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以後 韓半島는 東西冷戰의 틀바구니 속에서 世界 그 어느 分斷國보다 南北韓의 對立이 劣態化되어 왔었고, 美·蘇의 利害關係가 各各 갈이 얽혀 있었던 關係로 南北接觸 역시 容易하게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南北交流提議는 1946年 <모스크바> 三相會議 後부터 北韓에 의해서 漸기차게 主張되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南北交流提議들의 밑바닥에는 恒常 <赤化統一>의 底意가 變하지 않은 채 깔려있었고 客觀的 情勢變動에 따라 다만 그 表現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本章에서는 主로 南北交流提議의 緣由와 그 問題點을 分析·評價해보려는 것이다.

### 一. 6.25 前後期

1948年 12月 <모스크바> 三相會議는 韓國領土統治를 위한 全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樹立의 問題를 商定하였다. 이를 實踐하



기 爲하여 1.2次 美·蘇共同委員會가 召集되었으나 失敗로 돌아가 美國側은 이 問題를 UN에 上程하여 1947年 11月14日 總會에서 <韓國統一獨立政府 樹立을 위하여 UN 監視下 人口比例로 南北韓 總選을 早速히 實現할 것>을 決議하였다.

한편 北韓은 1948年 3月26日 南北協商主張을 擧고나왔으며 1.2次會議을 平壤에서 개최했다. 이때 南北韓에서 6百28名의 代表들이 參席하여 南北의 人的 交流가 있었다. 이 會議에서는 外國軍隊의 撤退와 南北不戰의 確認이 宣稱되었다. 1950年 6月7日 北韓은 또다시 南北協商을 내세워 同年 6.28 前日까지 會議가 繼續되었던 것이다.

1950年 6月28日 午後 金日成은 平壤放送을 通하여 <三八度線 저쪽에서 李承晚軍이 攻擧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反擧를 開始했다>고 말하고 이어서 <어느쪽이 먼저 攻擧를 하였다면 38度線은 一時的인 軍事境界線인 것이지 政治的 意味는 없는것>이라고 南侵을 合理化하려고 했던 것이다.

## 二. <제네바> 協商 以後時期

韓國戰爭 休戰協定 成立後 1954年 4月27日부터 6月15日에 걸쳐 <제네바>에서 韓國統一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國際會議가 열렸다. UN側으로 韓國과 參戰16個國 代表가 參席하였고 共黨側으로 北韓과 蘇聯·中共 代表들이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서 北韓代表 南日은 첫째로 大韓民國 國會와 그들의 <最高人民會議>에 依해 選出된 代表들로서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하되, 여기에는 가장 民主主義團體 代表가 包含되어야 하며 둘째로 6個月內에 모든 外國軍이 撤退해야 한다는 主張을 示했다.



이에 대하여 大韓民國代表는 民主的 全韓國選舉가 實施되는 것을 保障하기 위하여 UNOURE(UN韓國統一復員委員會) 監視下의 總選舉를 提議하였으나 이러한 UN側 提案에 대해서는 一言半句의 答辯도 없이 저들은 兵力減縮案을 들고나왔던 것이다.

1948年 12月11日 UN 第9次總會는 <제네바>會議에 參加하였던 18個國이 提出한 報告書에서

1. 侵略軍退却을 위한 集團措置
2. UN監視下의 自由選舉
3. 共黨側이 自由選舉를 拒否하는 以上 本會議을 통한 韓國問題解決을 承認하고,

1. UN의 目的은 勿論이 代議政治下의 統一獨立, 民主韓國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고

2. 同地域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完全히 회복하는데 있음을 再確認하였다.

北韓은 이보다 앞서 1948年 10月29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一期 第8次會議>에서 決議한 呼訴文을 發表한바 있다. 그 內容은 <反美 反政府 呼訴>이

1. 1955年內 兩側連席會議, 北南 國會, 共同會議 開催
2. 經濟, 文化, 通商, 通行, 通信往來를 위한 代表者會議 開催
3. 統一對策 장구를 위한 相互接觸 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南北連席會議에서 보듯이 一種의 煙幕戰術이요 北南 心理攻勢의 一環에 不適當한 것이었다.

여기서 注目할만한 것은 <제네바>協商이 決議된 後 1964年 10月28日 北韓 外相 南日이 <어미한 國際會議라도 우리나라 代表의 參加 있어는 그의 問題解決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表示해 주



있다>라고 말하여, 北韓이 처음으로 國際會議에서 大韓民國과 同席하였다는 것을 마치 北韓政權이 國際적으로 認定이나 받은 것처럼 暗示하였다는 事實이다.

### 三. 4.19 革命과 聯邦制論

4.19 革命이 일어나자 北韓 勞動黨 中央委員會는 1960年 6月 21日 字로 所謂 <南朝鮮에 造成된 現事態에 關聯한 呼訴文>이라는 題目의 宣傳文에서 “南北島嶼이 實現되기 前에는 南韓에서 누가 政權을 잡아도 造成된 深刻한 政治的 危機와 經濟的 破局을 克服할 수 없다”고 내세우고 이어 “平和統一은 어떠한 外國의 干渉도 없이 全体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依한 南北韓 總選舉를 通하여 實現되어야 한다”고 申述하였다.

그러나 이 呼訴文은 소박한 黨外大衆을 인혹시키려는 宣戰文獻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北韓 自身이 잘 說明하고 있다. 北韓의 黨機關紙인 “근로자” 1960年 第6호를 보면

1. 4.19 革命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이른바 <反美 反政府 鬭爭>이 되지 못했다는 點

2. 北韓의 黨에 依한 社會主義的 階級意識이 고취되지 못했다는 點

3. 地下黨組織의 續戰에 따른 指導者의 疲乏과 組織性 意識性 微弱으로 所謂 革命的 進出에까지 發展하지 못하였다는 點을 指摘함으로써 4.19 革命을 堂堂 兵艦統一에 이르는 前奏曲인양 評價한 것을 指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革命의 先行條件으로서 地下黨의 必要性을 認識하였다.

4.19가 일어난 그해 8月16日 解放16週年紀念 慶祝大會에서



金日成은 <聯邦制統一案>이라는 새로운 平和統一案을 提議하였다. 그것은 4.19革命에 迎습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內容을 간추려보면

1. 어떠한 外國의 干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할 것

2. 아직 南韓이 自由로운 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施로서 南北韓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即 南北韓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的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韓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할 것

3. 만약 以上の 提議을 南北政府 當局이 同意치 않는다면 南北韓 實業界代表로 構成되는 순전한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 것

4. 南北韓 文化使節의 來往과 科學·文化·藝術·體育 等 모든 分野에서 交際할 것

5. 南韓에서 의 美軍의 即刻 撤退를 要求하며 南北韓 軍隊를 各各 十萬 또는 그 以下로 減少할 것

6. 以上 諸問題를 協議하기 爲하여 南北韓 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會議할 것을 南韓當局과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에게 提議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었다.

이 提議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聯邦制 主義과 最高民族委員會 構成이라 하였는데 1957年 9月20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二期 一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의 報告演說에서 나온 平和統一案이나 1958年 2月6일에 提示한 4個項 統一方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時期的으로 4.19의 어수선한 政局을 利用하여 準備한 學生들을 動員하려고 했던 것이다. 4.19革命은 自由主義를 鼓



定하고 北韓의 聯邦制를 받아들여서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럴만한 政治的 勢力도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 四. 5.16 以後 時期

金日成은 1961年의 5.16 軍事革命을 < 4.19의 親共革命에 對한 5.16의 反共革命, 4.19의 民族革命에 對한 5.16의 反動革命 > 으로 規定하였으며, 5.16 革命에 威脅을 느낀 나머지 同年 7월 6日 蘇聯을 訪問하고 帶國하는 길에는 中共에 對하여 各各 軍事相互援助 條約을 締結하였다. 그리하여 一時는 平和統一論을 中斷하고 南朝鮮에 對하여 美帝와 軍事政權을 打倒하지 않고서는 統一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 根本적으로 南北朝鮮에 對하여 社會體制를 달리 하는 國家間에 平和共存이란 생각할 수 없다 > 고 말하였다.

그후 다시 偽裝戰術을 使用하여 北韓最高人民會議 第三期 第一次 會議에서 金日成은

1. 外國軍隊의 撤収, 自主的統一
2. 南北聯邦制 採択
3. 南北離散家族 및 親友間의 書信交換 등을 또 내세웠다.

이에 對하여 南朝鮮에서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않자 金日成은 1960年 9月9日 北韓政權樹立 20週年紀念 慶祝大會에서 < 지금 美帝의 忠實한 幫兇이 南朝鮮究國徒黨은 國家의 平和的 統一에 必死論으로 反對하여 平和統一이란 말만에도 拘束한다. 南朝鮮에 美帝와 그의 幫兇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平和統一이란 生覺할 수 없으므로 美帝를 追放하고 現傀儡政權을 뒤집어엎고 進歩的인 勢力이 政權을 장을 다음 비로소 祖國統一이 實現될 수 있다 > 고 力說함으로써 露骨的인 武力挑戰의 本心을 들어내었다.



1960年代에는 南韓에서 兩次革命과 韓日條約 締結等 三大政治的 混亂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北韓은 情勢變化에 따른 偽裝 南北交流 案을 主張하였다. 이러한 戰術의 底辺에는 赤化統一이라는 上首가 經常 숨어있었으며 그러한 態度가 根本적으로 變化하지 않는 限 南北接近에의 對話는 實現되기 어려웠던 것이며 共産側의 一方的 宣傳攻勢로 그쳤던 것이다.

### 五. 70年代의 南北接觸

70年代는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間에 새로운 勢力調整과 平和的 協調體制가 움트기 始作한 時期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大韓民國은 5.16革命 以後 政治的 安定과 高度 經濟成長으로 國力을 培養했으며 北韓에 強力히 對峙할 수 있게되었다. 이에따라 1970年 8月16日 朴大統領은 光復26週年紀念辭에서 平和統一方向을 提示하였다. 이어 71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總裁의 南北離散家族 찾아주기 運動을 展開하는데 對한 提議가 있자 北赤側은 이를 接인 8月14日 若干의 追加된 內容으로 呼應해왔다.

한편 金日成은 1970年 8月 南韓으로부터 美軍撤収를 強力히 主張하였으며, 이의 具體案이 1971年 4月12日 北韓外相 許談이 発表한 所謂 <祖國平和統一 8個項目計劃>이었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1. 南朝鮮에서 美軍을 撤収시킬 것
2. 美帝侵略軍이 撤収한 다음 南北朝鮮의 軍隊를 各各 十萬 또는 그 以下로 줄일 것.
3. 韓·美相互防衛條約과 韓·日條約을 비롯한 南朝鮮이 締結한 모든 條約과 協定案을 廢絶할 것.



4. 自主的이며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的인 中央政府를 樹立할 것.

5.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爲한 完全한 自由를 保障할 것과 南朝鮮에 投獄된 政治犯 및 愛國者를 釋放할 것.

6. 南北의 現制度를 그대로 두고 南北聯邦制를 實施할 것.

7. 南北通商, 經濟, 科學, 文化, 藝術, 體育等의 交流 및 書信交換, 人事往來를 할 것.

8. 以上の 問題를 協議하기 爲하여 南北政治協商을 할 것.

여기서는 아직 反美強勢가 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今年初의 新年辭에서는 從前의 美帝 대신 日本軍國主義에 對한 非難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今年 1月10日에는 日本 院究新聞 記者와의 會見에서 金日成은 또 平和統一攻勢를 本格的으로 開始하였다. 그 內容은

1. 南韓에서는 平和統一 慾求가 高潮되고 있다.
2. 南北赤十字社會談 積極支援
3. 非常事態宣言(71.12.6) 非難
4. 韓半島에서는 緊張狀態緩和를 爲해서는 무엇보다 停戰協定을 轉換해야 한다. 南北이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雙方이 相對方을 攻擊하지 않는다는 宣言을 하고 南朝鮮으로부터 美帝國主義 侵略軍을 撤収시키는 條件下에서 南北韓 兵力을 大幅 縮少할 것을 主張한다.
5. 南北接觸擴大를 爲해 南北政治會談을 開催하자는 것이었다. 北韓은 現在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四大大國들이 各己 自己에게 有利한 陣地를 構築함으로써 勢力均衡을 이루고, 平和共存 무드를



達成하고 있는 機會를 利用하여, 外國記者 특히 日本人記者를 通하여 宣傳을 展開하고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最近 美·中共間의 平和主義的 接近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무條件 韓國> 政策을 段階적으로 施行하려는 데까지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그와같은 情勢를 正確하게 判斷하고 <8.15宣言>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國際狀況 變化에 対応할 慎重한 政策을 導出함으로써 지난 1971年 第26次 UN總會에서 蘇聯과 共産國家가 提出한 南北韓同時招請案에 対応할 수 있는 態勢整備과 아울러 <유니버살리즘>을 根據로 分斷國의 UN 一括加入을 主張하는 平和主義運動에도 対応할 수 있는 統一戰略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III . 南北接觸의 國際政治的 意味

排他的인 運民思想과 狂的인 支配慾의 奴隸였던 파시스트들에 依  
에 挑發된 人類의 悲劇 第二次世界大戰이 戰爭挑發者들의 敗亡으로  
끝났을 때 地球上에는 真正한 平和가 찾아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파시스트에 못지않는 狂信과 支配慾의 所有集  
團이, 그 莫大한 犠牲으로 얻은 平和로 그 勢力을 增強했음을 알  
게되었다. 그것은 蘇聯의 國力을 등에 지고 스탈린을 絶對的인  
上典으로 떠받들고 있는 共產主義集團이었다.

戰爭의 終結이 臨迫하자 共產主義統一司令部는 戰後에 可能한 그  
들의 勢力範圍圖를 作成하였고 그 領域 속에 韓半島의 38度線  
以北을 包含시켰으며 그곳을 北端으로 하는 다음 段階의 作戰計劃  
까지 樹立했다. 反面에 西方側 特히 美國은 戰犯國의 復興은 構  
想하면서도 共產國 甚大나 그 隣接地域의 安全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듯이 보였다. 莫大한 蘇聯軍의 占領下에 들어간 諸地  
域의 運命은 가지가지로 悲慘했으며, 隣接地域도 또한 共產主義者들  
의 策動에 假하여 거의 率日이 變했다.

無慈悲한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힘의 論理가 自主自立한 自体의  
能力을 갖추지 못한 民族은 支配와 抑壓을 當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말한다면 예기는 苦난다. 그러나 韓民族은 이제 他意에 依한 分  
斷을 自意에 依한 再結合으로 이끌려는 努力 即 南北接觸을 시작  
했다. 無氣力한 運命論에 빠져있으면 周圍情勢는 悲觀的으로만 보  
일 것이며, 短慮의 希望論은 끝도 없는 自身과 民族의 將來를 영영  
그로칠 危險性이 있다.

南北의 接觸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國際關係의 橋(지리)



에서 民族의 感知가 歷史의 審判을 받는 것으로 理解한다. 그런 見地에서 南北接觸의 國際政治的 意味는 가장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接觸의 目標는 分斷된 祖國의 再結合이요 接觸의 目的은 所與의 主觀的 客觀的 條件下에서 目標에 이르는 모든 可能的 方法을 共同研究하는 일이다. 그러한 認識에서 筆者가 理解하는 南北接觸의 國際政治的 意味를 略述해 보겠다.

첫째로 南北接觸은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關係의 定着點을 予見하는 韓民族과 利害關係國家들의 見解의 共通因子 增加의 所産이다.

여기서 韓民族이라 함은 南北을 통틀어 指稱한 말이다. 뒤에서 다시 檢討하겠거니와 北韓政權은 赤化統一의 野望을 버리지 않는 안이나 中·短期的으로 武力使用이나 破壞行動을 삼가고 平和的 接觸을 決心한 듯하다. 南韓은 5.16 革命後의 經濟的 成長과 政治的 安定을 制度的 改革으로 組織化하여 強力한 指導力 밑에 總力으로 分斷에 依한 民族의 異質化를 막고 回復하기 爲에 北韓과의 接觸을 果敢히 主導하고 있다.

利害關係國인 美·蘇·中·日도 各己 利害打算은 있겠으나 아 물론 南北接觸에는 贊意를 表示하고 있다. 美國은 이미 그 對外關係에 基本方針을 變更한 지가 오래이며 蘇聯 또한 韓半島에서 다시 美國과 對立할 處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韓國戰爭時 美國과 直接 交戰한 中共 역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 支持政策이 對美關係改善의 捷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經濟優先主義 日本은 南北 雙方과 經濟關係를 더욱 深化하므로써 韓半島의 反日化를 防止하고, 南北의 平和的 結合을 利用하여 實利를 얻고 同時에 影響력을 增



大하라는 것이다.

以上을 要約하면 南北接觸은 周辺 國際大國의 勢力均衡의 喪失으로 美·蘇의 影響力의 相對的인 弱화와 日·中의 影響力의 相對的 強化를 意味하는 同時에 南北雙方 國際政治的 比重이 커졌다는 點 點을 具體的으로 示해 주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接觸은 本質的으로 自由體制과 共產體制的 對照를 方法으로 한 對決이다.

相異한 理念과 體制를 가진 國家間的 平和的共存, 國家의 利益 追求를 爲한 異理念的 交際 等等 國際關係는 流動的이고 不安定하다. 國際關係에 있어 諸國家間的 利益衝突의 動機는 一般的으로 國家利益 追求의 衝突에 歸하며 亞거거나 露西亞 革命後 다시 第二次世界大戰後 世界는 理念의 對立을 深刻하게 體驗했다. 共產 主義는 32年間に 全人類의 거의 半을 支配하게 되었다.

이 事實은 世界를 二分시키기에 充分했다. 그러나 그 對立의 實際關係는 對稱적이지 不是을 顯露시켰고 對立 對立도 對稱적이지 不是 對立을 나타냈다. 또 對立의 對稱적인 體制에 對해서도 對稱적 對立과 對立을 追求하는 對決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先來 自由主義이란 언제나 固定概念에 依해서 變하는 것으로 對稱적 對立의 對稱을 對稱으로 變하는 對決에 對해서 對稱을 對稱할 수 있는 心算狀態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對稱적의 對稱은 一定한 體制로 對稱할 수가 있는 것이다. 對稱은 對稱적이다. 對稱 對稱과 對稱의 對稱을 對稱하는 對決이라고 여기진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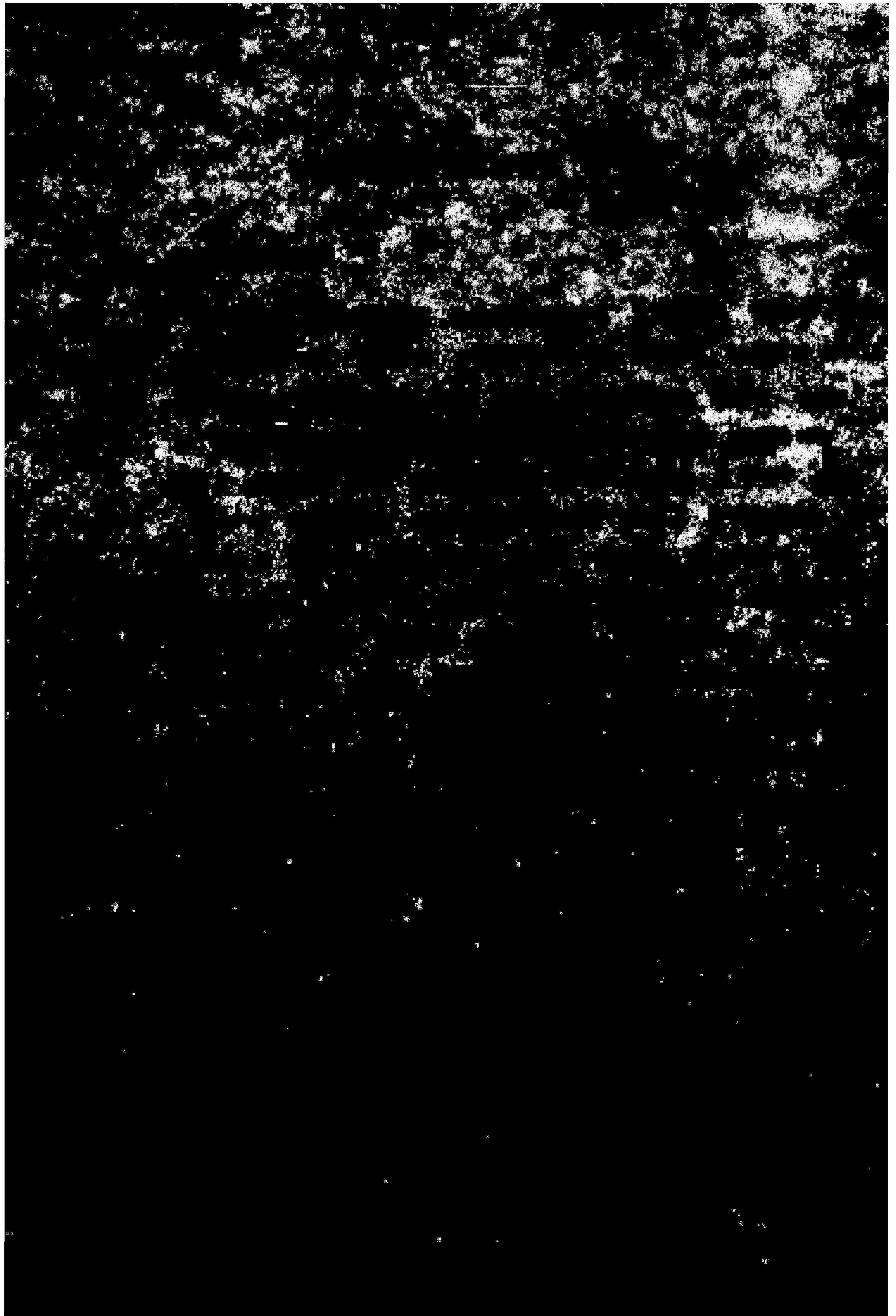
거나 結束은 이미 予見되고 있는 것이다. 삼으로 民族의 슬기를 全世界에 보여줄 수 있는 千載一遇의 機會라고 하겠다.

셋째로 南北接觸은 南北韓 各己의 背景의 諸要因(即 關係國家들의 利害關係觀念, 體制, 軍事力, 敵對意識 등등)의 共同調整에 依해서 實効를 거두려는 새로운 試圖이다.

自主·平和·民族的大團結을 原則으로 出發한 南北接觸은 自主라는 名分 때문에 關係列強의 利害를 無視할 수도 없거니와 無視하려고 해서 는 안될 것이다. 이 問題는 觀念과 體制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 大團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解決의 難易가 크게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武力行使의 拋棄나 敵對意識 解消의 努力 등은 初參的인 事項에 屬할 것이다. 6.25의 悲劇을 되풀이 하는 民族이라면 차라리 한 民族임을 스스로 拋棄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初參的인 戒律까지도 스스로 어긴 前科가 있다. 權力의 生涯가 그런 것이라면 그러한 모든 初參的인 問題까지도 彼此 保障하는 뜻에서 抑制를 위한 制度設定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아름은 共同聲明의 理想과 南北接觸의 實踐 사이에는 民族의 슬기밖에는 그 아무것으로도 解決하기 힘든 難問題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 意味에서 南北接觸은 從來의 國際政治의 概念을 變革할 수 있는 새로운 試圖인 것이다.







## IV . 蘇聯의 對韓政策의 어제와 오늘

### 一 . 對韓半島政策

韓半島는 歴史的으로도 帝政露西亞政府의 東進政策이 列強의 勢力과 衝突을 한 곳으로서 1905년에는 露・日戰爭의 前哨戰을 치루어야 했다. 2次大戰이 끝난 후에는 世界共産革命 遂行의 一環으로 亞細亞赤化에 있어서의 重要目標인 日本의 赤化를 成就하려는 蘇聯의 政策으로 因해 韓半島에서는 다시금 戰爭을 치루어야 했다.

1949年 西歐에서는 NATO가 創設되었고 蘇聯은 原子彈實驗에 成功하였으며 亞細亞에서는 中共이 大陸을 掌握하는 등 커다란 變化가 있었다. 蘇聯의 共産化政策이 西歐에서 成功的으로 實現되지 못한데다가 새로이 NATO가 結成된 것은 蘇聯의 이러한 野心을 더욱 挫折시켰다. 그러한 反面에 蘇聯이 核武器를 새로이 保有하게 된 事實은 이 때까지의 美國의 核独占을 깨뜨려 美國이 더 이상 果敢하게 핵을 가지고는 蘇聯을 威脅할 수 없음을 証明했던 것이다. 또한 亞細亞에서는 共産主義革命路線을 걷는 中共이 大陸을 席捲하고 政權을 樹立하게 되었으니 이 때까지 多數의 西方勢力에 물리던 蘇聯은 새로 強力한 同盟軍을 東에서 얻게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背景은 蘇聯이 그의 政策的인 進路를 “대륙면”에서 阻止되자 東으로 옮겨온 事實을 잘 說明해주고 있다. 亞細亞에서의 美國의 強力한 軍事的 基地는 主로 日本과 韓半島 南半部이므로 韓半島로부터 美軍의 基地를 除去하는 것은 우선 韓半島를 赤化하고 나아가 日本을 赤化하는데 先決要件이다.

地理적으로 韓半島는 日本과 같은 大韓海峽으로 이웃해 있고 蘇聯



中共과 합계 國境을 나누고있다. 따라서 日本으로 赤化政策을 進  
展시키기 爲해서는 通過하지 않을 수 있는 橋樑이 되기도 했다.  
韓國戰爭當時 "블라지보스토크"에 基地를 가진 蘇聯의 戰艦機함의  
行動半徑은 日本과 沿海洲를 往復할 수 없었으니 적어도 烏山, 水  
原飛行場을 利用해야만 했고 大韓海峽을 制壓해야만 東海에 있는  
蘇聯의 樞東艦隊와 西海에 있는 中共의 艦隊, 그리고 東海와 西海  
로 갈라져있는 北韓의 艦隊가 聯合할 수 있었다. 그海軍勢力이  
멀리 印度支那의 "모"灣까지 미칠 수 있게되면 日本 佐世保港  
主基地를 가졌던 美海軍을 마비시켜 太平洋으로 몰아낼 수도 있었  
던 것이다. 또 한편 日本赤化를 爲한 靑島라 함에 있어서도 日本  
과 韓半島 사이에 있는 對馬島를 利用한다면 容易하게 遊擊隊員을  
侵透시킬 수 있는 등 韓半島는 蘇聯의 沿海洲와 隣接한 좋은 位置  
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理由에서 1950年 "스탈린"은  
金日成을 使節하여 韓國에 對해 武力侵略을 敢行토록 하였던 것으  
로 判斷된다. 이처럼 韓半島가 蘇聯에 重要視된 事實은 第二次大  
戰이 막 끝나고 韓半島가 日帝의 支配에서 解放되었을 때에도 明  
白히 들어났다. 그것은 統一된 韓國政府를 樹立하는 問題를 다루  
는 美蘇共同委員會의 閉會演說에서 蘇聯의 首席代表 "치스차코프"  
가 蘇聯과 國境을 접한 韓半島에 서로 樹立될 政府는 共產主義政  
府여야만 한다고 못박았던 事實만으로도 分明하다. 이와같이 韓半  
島의 重要性을 크게 認定하고있는 蘇聯은 이를 爲해 北에 親蘇  
金日成政權을 樹立하여 援助를 繼續해왔을뿐만 아니라, 中蘇紛爭이  
始作되면서부터는 北韓을 自己便에 捲어내기 爲하여 中共과 맞서  
熾烈한 競爭을 하고있는 것이다.



## 二. 蘇聯의 對北韓政策

스탈린主義에 立脚한 北韓의 衛星國化를 끝낸 다음 蘇聯은 強力한 影響力을 背景으로 北韓을 自身の 極東 前哨陣地 乃至는 安保上의 緩衝地帶로서 維持하기에 努力해왔다. 그러나 1956年의 第20次 黨大會를 契機로 發生한 中. 蘇의 對立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分裂, 北韓의 自主路線等 一連의 事態로 北韓에 對한 蘇聯의 支配權은 弱化되었다. 이때부터 北韓을 둘러싼 中. 蘇間의 角鬪은 露骨化되었으며 이른바 “北方三角關係”의 複雜性이 形成된 것이다.

北韓이 비록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인 면에서는 蘇聯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하더라도 地理的으로나 歷史的인 關係에서는 中共의 影響力을 無視할 수 없고 政治的인 면에서는 오히려 中共側에 依存하고 있는 만큼 蘇聯의 對北韓政策에는 적지않은 隱路가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蘇聯은 中共의 孤立化를 爲하여 北韓의 對中共一辺 倒를 防止하려는 意圖에서 北韓에 對한 軍事 및 經濟援助를 繼續했던 것이며 最近에는 中共의 孤立化를 爲한 亞細亞安保體制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中. 蘇關係의 交運過程을 歷史적으로 考察해볼 때는 蘇聯의 對韓政策을 屢變하는 데에 先決條件이 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 1. 受動的인 對蘇關係

受動的인 對蘇關係는 北韓의 對蘇一邊倒時期를 말한다. 스탈린의 武裝援助方式을 通한 人民民主主義의 革命戰略을 不変의 契機로 받아들였던 金日成은 蘇의 對 蘇聯에 依存했으며 “르데모일”으로



부머의 指令을 履行하는 것이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政權의 任務의 全部였다.

1945年8月8日 對日 宣戰布告를 하고 不過 며칠사이에 僅小한 備性으로 韓半島의 38線 以北을 完全히 占領한 蘇聯은 北韓地域에 軍政을 實施하였다. 蘇聯軍은 北韓住民의 活動을 嚴格히 統制하면서 日本的 要素의 一掃, 勞動者 및 技術者에 依한 工場管理, 反日 團體結成의 許容, 政黨 및 社會團體의 構成員 名簿提出, 武裝團體의 解放等을 主로 한 統治方式을 取하였다.

蘇聯軍은 1945年 11月14日 平壤 市民大會에서 蘇聯의 忠實한 追從者인 金日成을 처음 群衆에게 紹介하고, 曹晚植을 中心으로 한 北韓 過渡行政機構인 五道行政局의 權限을 奪取한 다음 1946年 2月6日 所謂 <人民代表者會議>를 構成시켜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한 北朝鮮人民委員會를 組織하였던 것이다. 金日成은 이 事實을 가미쳐 “北半部에서 蘇聯軍隊가 이루어준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組織된 이 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動同盟에 基礎하였다”고 自讚하면서 蘇聯占領軍에 依해 造成된 脚本을 感謝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은 1949~1948年사이에 北韓의 모든 支配體制를 整備하였다. 이어 1948年 9月20日 北韓地域에 殘留한 蘇聯軍을 1949年 1월까지 撤収를 完了하겠다는 聲明書를 發表함으로써 蘇聯軍政은 外觀上 끝나게된 것이다.

北韓政權 樹立後 蘇聯은 1949年 3月 北韓과 10個年 文化協同協定을 締結하고 北韓에 對한 經濟 文化的影響力을 強化하면서 北韓 指導層內에 蘇聯 共產黨에 依해서 訓練받은 親蘇派人士들을 用用시키는 同時에 金日成一派中의 蘇聯系派 要人에 依存 北韓을



支配하였다.

蘇聯의 對北韓政策은 東歐에서와 마찬가지로 所謂 <人民民主主義革命方式>을 實施하여 北韓을 完全히 衛星化하여, 그의 支配權을 確立하려는 것이었다. 蘇聯은 1949年 3월부터 本格的으로 北韓 軍을 訓練시키기 爲하여 幹部養成에 着手하였고 한편 2億2千萬 圓의 借款을 供與하여 經濟建設과 軍事力 增強을 可能케 하므로서 南韓 侵略의 모든 準備를 完了하고 1950年 6月25日 드디어 南 侵을 敢行케하였던 것이다.

韓國戰爭이 挑發되자 蘇聯은 “攻韓은 南朝鮮軍으로부터 始作된 것이며 따라서 北朝鮮軍이 그 攻韓을 導導하도록 指令을 받았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北韓의 挑發을 全的으로 支持하고 나섰으며 7月4日에는 다시 美國大統領 트루먼이 韓國戰에 美軍을 投入하였다는 非難聲明을 發表하여 北韓을 庇護하면서 北韓의 南侵을 正當化하려고 했다. 그러나 北韓은 戰爭中 莫大한 犠牲을 냈고 南韓에서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失敗를 自認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또 蘇聯의 直接的인 軍事介入 回避는 北韓의 不滿을 사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은 後日 北韓의 自主路線 標榜의 가장 有力한 口實이 되기도했던 것이다.

## 2. 轉換期的 對蘇關係

轉換期的 對蘇關係라고하면 北韓이 對蘇一辺倒政策을 再檢討하기 始作한 1953년부터 中, 蘇聯의 密月旅行이 終末을 알렸던 60年代 初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北韓이 自主路線을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으로 決定하기에 이르는 過渡期的인 時期를 뜻한다. 1953年 9月 1953年 8月8日 蘇聯首相 알렌코프는 最高소비에트第5次會議에



서 北韓의 戰後復旧를 爲하여 10億루블 援助를 提議하였다. 그러나 스탈린 死後의 金日成의 對蘇態度는 從來와같은 絶對的인 服從 姿態에서 漸次로 自主的 政策變化의 方向으로 轉換하기 始作하였다. 이와같은 轉換은 勿論 蘇聯으로부터 非難을 받았다. 1956年 2月 第20次 蘇聯 共産黨大會가 決定한 <平和共存>과 스탈린格下에서 비롯한 中·蘇間의 對立이 漸次로 激化되고 中共이 北韓에 對해 援助提供을 서두르자 北韓은 對蘇一辺倒政策에서 漸次 對中共偏重政策으로 轉向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北韓이 政治理念的으로는 中共에 共感 同調했으나 軍事·經濟的인 面에서는 蘇聯의 援助를 無視할 수 없는데에 金日成의 矛盾과 苦惱이 있었다.

그무렵 南韓에는 軍事革命政府가 樹立되고 反共體制가 強化되었다. 따라서 北韓은 蘇聯과의 사이에 어떤 條約上的 保障이 必要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1961年 6月29日 蘇聯 第一副首相 코쓰이긴이 平壤을 訪問한 後 이어 金日成은 6月29日~7月10日 사이에 蘇聯을 訪問하고 <朝·蘇友互協力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여 蘇聯으로부터 經濟 및 技術援助提供을 約束받았다. 그 反面 北韓은 1961年 第4次 黨大會에서 蘇聯派 要人들을 完全히 除去하고 金日成側 近으로 黨要職을 構成 自主·自立을 標榜하는 7個年 經濟計劃을 樹立 発表하였다.

이와같은 北韓의 自主經濟 標榜은 다시 蘇聯의 憤怒를 샀으며 이로 말미암아 蘇聯의 對北韓援助는 一時的으로 中斷되었다. 아문은 1962年부터 北韓의 對外政策은 中·蘇紛爭의 激化 1962年 10月의 "쿠바" 事變, 1962年 11月의 中·印國境紛爭, 1962年 9月의 蘇聯·유고間의 關係改善等等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面에서 完全



이 中共의 變에 對고, 對中共 傾斜 政策을 指向하였기 때문에 對  
蘇關係에서는 더욱 不和를 招來했다.

### 3. 自主路線期의 對蘇關係

1964年 10月의 鄧小平이 失脚後에 登場한 鄧小平은  
포시진體制는 그의 對外的政策에서 鄧小平의 政策을 그대로 繼承하  
였으나 이데올로기論争과 國家間의 關係는 區別한다는 印象을 주며  
고 努力하였다.

그리하여 社會主義國內에서 蘇聯의 權威를 쇠약하고 蘇聯으로부터  
離脫傾向이 있는 國家와의 關係正常化를 圖謀하려고 努力하였는데,  
이는 특히 對中共關係에 對하여 重點적으로 實行되었다. 다시말하  
여 蘇聯은 <中共의 孤立化政策>을 實現化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은 政策의 具體的 原因은 1965年 2月 蘇聯首相 鄧小平  
의 北韓, 中共, 越北, 三國 訪問에서 說明할 수 있다. 當時 北  
韓은 中, 蘇聯爭에서 中共과 完全히 同一步調를 取하고 있었으며  
越北도 事實上 中共에 기울어지는 立場을 取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鄧小平이 平壤을 訪問하여 金日成을 會見할 北韓 首相과  
會談할 時 提議된 共同原則은

1. 蘇聯, 北韓의 友好協力 相互援助의 關係를 力圖하고
2. 北韓의 平壤統一政策을 支持하며
3. 蘇聯共黨主義路線의 國際 平等을 提議하였다. 이를 實現하기  
爲기 蘇聯, 北韓의 關係는 漸次 發展되게 檢作된다. 것이다. 이와같은  
當時 蘇聯은 이데올로기論争으로 對中共 傾斜政策을 實行한것만 勿論  
對蘇關係를 改善하기 爲기 努力을 爲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 北韓은 蘇聯에 對한 鄧小平의 政策대로 蘇聯의 對蘇聯 關係



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中共側으로서도 國內적으로 文化革命을 치르는 混亂期에 있었으므로 北韓의 이러한 對蘇接近을 阻止할 余地에 있지 못했던 것이다. 1966年 3月 29日 開催된 第23次 蘇聯 共産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는 <蘇聯共産黨과 蘇聯國民은 美帝國主義에 反對하여 民主主義的 原則에 立脚하여 朝鮮統一을 爲해 싸우고 있는 朝鮮人民을 全面的으로 支持하고 있다. 우리黨도 全蘇聯人民도 朝鮮人民의 勝利를 達成하며 朝鮮 全体가 統一되어 自由로와질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다>라고 北韓의 基本政策을 支持하였다. 그후 브레즈네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飛來하여 同年 8月 金日成과 单独會談을 가진 다음 双方의 友好關係를 다질하고 1966~76年間の 長期經濟技術協定을 締結하기에 이르렀으며 北韓은 이를 바탕으로하여 7個年計劃의 3個年 延長을 決定할 수 있었던 것이다. 當時 北韓의 經濟는 蘇聯의 援助없이는 支撐할 수 없는 事態에 있었으니 中共路線 離脫은 不得已한 일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1966年 8月 이른바 <自主路線>을 宣言하여 中共路線 離脫을 自己 나름대로 合理化시키면서 中.蘇對立에 달려들지 않으려고 努力하였다. 北韓은 中.蘇의 對立이 國家利益의 相衝關係로 發展되고 있고 從來 同一路線을 달리하고있던 國際共産主義運動이 分裂狀態에 빠지고, 北韓에 對한 中.蘇의 接近戰略上에도 微妙한 問題點들이 惹起됨에 따라 스스로의 位置設定과 方向摸索을 試圖하면서도 對蘇.對中共關係에 慎重을 期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變遷는 共産國 內部的 變化趨勢에 따른 自己舍置化를 爲한 一連의 戰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突利的인 圖에서 親蘇關係를 더욱 強化해감에 따라 蘇聯으로부터는 經濟.科學.技術.軍



事面에서 더 많은 援助를 얻게 되었으며 1967年 3月 締結된 軍事 및 技術援助協定에 依拠하여 蘇聯은 北韓에 1億7千8百萬달라의 軍援을 提供키로 約束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의 對蘇 및 對中共關係도 70年代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變化要因을 隨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4. 70年代의 對蘇關係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의 對外政策은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進展되고있는 感을 준다. 이와같은 對外政策의 一環으로써의 對蘇政策에도 流動性을 內包하고 있는바 그것은 몇가지 變化要因으로 輪廓을 把握할 수 있겠다.

첫째 北韓指導層에는 內外問題에 對해 民族的 次元의 接近方法을 取하려는 傾向이 顯著해지고 있다. 아직 그들의 目的이자 手段인 <革命>을 拋棄하고 南北의 對話를 爲한 積極的인 態度를 가질지는 疑問이지만 確實히 可能한 限 外勢依存에서 벗어나려는 努力만은 보인다.

둘째 北韓의 政治的 自主와 經濟的自立을 통한 自力更生의 主張은 蘇聯의 對北韓政策에 적지않은 制約과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셋째 中共과 蘇聯의 對美接近을 北韓으로 하여금 더 이상 宗主國에 對한 期待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으며 自己스스로 西方國家와의 接觸을 始作하기에 이르렀다. 最近 美國言論人들에 入國을 許容했던 것은 그 例이다. 따라서 70年代에 있어서의 北韓의 對外關係는 보다 幅이 넓어질 것이 確實하며 相對적으로 對蘇關係의 比重이 從前에 比해 낮아질 可能性이 짙다고 보겠다.

네째 最近의 韓半島를 둘러싼 緊張緩和와 協調的 姿勢로 보아



蘇聯은 半島內에서 紛爭이 일어나 4 強國의 勢力이 不均衡狀態에 놓이는 것을 願치않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과의 友好關係를 維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韓半島의 緊張을 高潮시킬 危險性이 있는 對北韓 過剩支援은 避하려고 努力할 것이다.

以上の 몇가지 現實的인 條件 위에서 今後의 北韓·蘇聯關係를 推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V. 南北接觸에 對한 蘇聯의 反應

7. 4 南北共同聲明에 對한 蘇聯을 爲始한 共產諸國家의 反應은 自由世界 諸國家의 그것처럼 直刻的인 것도 아니었으며 또 大々的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韓半島 共產統一에 對한 積極 支持의 表面的 態度와는 달리 其實 客觀的 可能性이 전혀 없어진 共產統一에 對한 念願이 現狀維持 내지는 現狀固定의 方向으로 變해가고 있다.

**V. 南北接觸에 對한 蘇聯의 反應** 發表된 以後 南北 接觸에 對한 蘇聯의 報道를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7月4日 모스크바 放送은, 平壤의 朝鮮中央通信社를 引用하여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는 事實을 報道하였다.

7月10日 蘇聯共產黨 機關紙 "프롤레타리아트"는 北韓 朝鮮人民의 要求를 引用하여서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한 朝鮮人民의 要求를 總括한 點을 爲해 美國이 敢行하고 있는 政策에 對해 警告하였다.

1. 南北共同聲明은 朝鮮人民의 要求를 總括한 點을 爲해 美國이 敢行하고 있는 政策에 對해 警告하였다.

2. 美國은 朝鮮의 內政에 干渉하는 政策을 奉行하고 있는 點을 爲해 警告하였다. 美國의 政策은 朝鮮의 統一을 阻害하는 點을 爲해 警告하였다.

7月13日 모스크바 放送은, 平壤의 朝鮮中央通信社를 引用하여서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는 事實을 報道하였다.

1. 北韓 朝鮮人民의 要求를 總括한 點을 爲해 美國이 敢行하고 있는 政策에 對해 警告하였다.

2. 美國은 朝鮮의 內政에 干渉하는 政策을 奉行하고 있는 點을 爲해 警告하였다. 美國의 政策은 朝鮮의 統一을 阻害하는 點을 爲해 警告하였다.



## V. 南北接觸에 對한 蘇聯의 反響

7.4 南北共同聲明에 對한 蘇聯을 爲始한 共產諸國家의 反應은 自由世界 諸國家의 그것처럼 直刻的인 것도 아니었으며 또 大々的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韓半島 共產統一에 對한 積極支持의 表面的 態度와는 달리 其實 客觀的 可能性이 전혀 없어진 共產統一에 對한 念願이 現狀維持 내지는 現狀固定의 方向으로 變해가고 있다는 証左라고도 보여진다. 7.4 共同聲明이 發表된 以後 南北 接觸에 對한 蘇聯의 報道를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7月4日 모스크바 放送은, 平壤의 朝鮮中央通信을 引用하여 南北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는 事實을 報道하였다.

7月10日 蘇聯共產黨 機關紙 “프라브다”는 北韓 外務省의 聲明을 引用하여서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한 朝鮮人民의 鬪爭을 妨害하기 爲해 美國이 敢行하고 있는 策動에 抗議하면서,

1. 南北共同聲明은 朝鮮人民뿐만 아니라 全世界 平和愛護 人民의 熱烈한 支持를 받고 있다.

2. 美國은 朝鮮의 內政에 對한 干渉을 即刻 中止하고 UN軍의 名目으로 南朝鮮을 占領하고 있는 美軍을 撤収해야 하며 UN韓國 統一復興委員團을 解体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7月13日 모스크바 放送은 그 時事解説에서,

1. 北韓 外務省 聲明 속의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을 解散시키라고 要求한 部分에 注意를 喚起시키려고 한다.

2. 南北朝鮮은 武力으로 南朝鮮을 占領하고 있는 美帝國主義에 對한 任意로 分斷되어 있다고 主張하고,

3. U N 韓國統一復興委員團의 實際活動은 朝鮮의 民族 統一問題의 解決과는 아무런 共通性도 없으며,

4. 同委員團은 U N 總會에 提出하는 報告書에서 朝鮮의 實情을 歪曲 描寫하고 있으므로,

5. 그러한 活動은 朝鮮의 統一事業에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더 큰 難關을 造成할 뿐이기 때문에 同委員團의 解散을 要求했다고 말한 다음,

6. 朝鮮의 統一問題는 勿論 하루아침에 解決될 수 없는 일로서 累積되어온 障礙를 없애려면 적지않은 일을해야 한다.

7. 朝鮮의 任意的 分裂을 克服하는 唯一한 方法은 朝鮮에 存在하는 2개의 國家가 相互 對決이 아닌 經濟, 政治, 文化的 連繫을 맺는 길이라고 主張하고,

8. 朝鮮人民은 어떤 外勢의 干渉없이 스스로 民主的 基礎 위에서 平和的 統一을 達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9.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으로 培養된 蘇聯 人民은 朝鮮 兄弟들의 朝鮮半島에 統一된 自主的 民主主義 國家를 세우려는 宿望이 하루속히 實現되기를 祝願한다고 끝맺었다.

7月23日 모스크바 放送은 大略 다음같은 時事解説을 했다.

1. 南朝鮮 金鎭泌 國務總理는 一連의 國會質疑에 對한 答辯에서, 駐韓美軍의 撤収說은 實情에 符合되지 않으며, 美軍은 가까운 時日에 完全 撤収하지 않을 것이며 美軍의 韓國과 關聯된 모든 問題는 兩國間의 共同協議會에서 解決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이와같이 서울政府와 워싱턴은 朝鮮統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障礙物을 除去할 意思를 가지고 있지 않다. 美軍의 南朝鮮



強占은 朝鮮의 民族統一 途上에 놓여있는 基本的 障礙로 되어있다.

3. 蘇聯이나 朝鮮의 벗들은 祖國統一과 南朝鮮으로부터의 美軍 撤収를 爲한 朝鮮人民의 鬪爭을 잘 理解하고 있다.

4. 美軍의 駐韓은 朝鮮人民의 內政에 對한 破廉恥한 干涉行爲인 것이다.

美帝의 南朝鮮 強占은 南北 朝鮮사람들 間의 相互理解를 두텁게 하는데 人工的인 障礙를 이루고 있다.

5.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朝鮮 出版物들은 美國의 各種 宣傳機關이 指摘하고 있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外國에 가있는 美軍이 人道主義的 義務를 遂行한다느니 法的秩序와 自由理念을 守護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이를 正當化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6. 그러나 事實은 이와 正反對이다. 美軍은 南朝鮮에서 저지른 各種 犯罪行爲의 事實을 많이 蓄積하고 있다.

美軍의 南朝鮮 等地에서의 犯罪行爲, 麻藥中毒, 人種的衝突은 그 固有의 特徵으로 되어있다.

7. 서울 政府의 特別資料에 依하면 最近 3年間 南朝鮮에서는 5,000 件에 達하는 美軍兵士들의 重大한 犯罪行爲가 記錄되었다.

그러나 不過 10余名이 品行이 나빴다는 理由로 罰金을 냈을 뿐이다.

8. 나머지는 証據不充分이라는 口實로 아무런 処罰을 받지 않았다. 全體 양키들의 犯罪行爲는 實上 南韓駐屯 美軍 地位에 對한 韓美行政協定에 依해 処罰을 免하게 되는 것이다.

9. 여기서 特別히 指摘하고 싶은 것은 南朝鮮 國會에서 一連의 議員들이 南朝鮮 強占 美軍이 언젠가 물러가게 될 것인가 하는 質問을 提出하였다는 事實 自体이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이러한

獨斷은 容共的 破壞行爲로 評價되었던 것이다.

10. 南朝鮮 國會議員들까지도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을 撤収하여 朝鮮人民의 內政에 對한 外勢의 干涉을 終絶시킬때가 되었다고 認定하고 있다. 이것은 자못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11. 오늘 서울政權은 南朝鮮 住民들이 美軍을 撤収시키고 自己의 內政問題를 朝鮮사람 自身の 손으로 解決하기 爲한 民族解放鬪爭에 보다 더 積極적으로 捲기하고 있다는 明白한 事實에 直面하였다.

7月25日 모스크바 放送은 蘇聯에서는 모스크바, 나호뜨카 等地에서 群衆大會를 開催,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을 撤収시키고,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祖國을 平和적으로 統一시키기 爲한 朝鮮人民의 鬪爭을 支持하는 連帶性 月間行事가 進行되고 있다고 報道했다.

7.4 共同聲明 發表에 對한 簡單한 事實報道에 덧붙여 蘇聯側이 前記한 報道들을 綜合하면 大略 아래와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첫째로, 7.4 共同聲明은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總書記, 北韓內閣 首相 金日成의 이니셔티브로 平壤과 서울에서 열린 南北韓의 公式 代表들의 交渉의 結果로 發表된 것이다.

둘째로, 南北韓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해서는 그와같은 統一의 基本的인 障礙로 되어있는 UN軍의 이름으로 駐屯하고 있는 美軍이 撤収하여야 하며 韓半島의 實情을 UN에 歪曲하여 報告하고 있는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이 解体되어야 한다.

셋째로, 南北韓의 統一問題는 累積되어 온 障礙를 없애기 爲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一朝一夕에 다 解決될 수는 없으며 2개의 國家가 相互 對決이 아닌 經濟, 政治, 文化的 連繫



를 맺는 길만이 唯一한 方法이다.

네째로, 自由言論 出版物들을 美軍駐屯을 正当化하려고 美軍이 人道主義的 義務를 遂行하고 있다. 法的秩序와 自由理念을 守護하고 있다는 등 美國의 各種 宣傳機關의 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섯째로, 南韓에서는 國會議員들 까지도 美軍의 撤収로 內政에 對한 干涉을 終熄시킬 때가 왔다고 認定하고 있고, 서울政權은 住民들의 美軍撤収와 自主的 內政 解決을 爲한 民族解放鬭爭에 보다 積極的으로 踴기하고 있다는 明白한 事實에 直面하였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7.4 共同聲明 直後의 蘇聯側의 態度와 主張에는 몇가지 注目할만한 點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對해서는 뒤에서 言及하기로 하겠다.

南北接觸의 其後의 進行에 對해서도 蘇聯側은 如前하게 大體로 簡單한 事實報道만을 계속하고 있다.

9月14日 蘇聯政府 機關紙 “이즈베스키야”는 平壤發 國外短信의 形式으로 <南北會談>이라는 3號活字 題目으로 報道했다.

9月13日 서울에서 南北赤十字社 本會談 第二次 會談이 開催되었다. 이미 報道된 바와 같이, 第一次 會議은 今年 8月30日 平壤에서 成功的으로 進行되었던 것이다.

9月19日 “이즈베스키야”紙는 다시 <肯定的인 諸結果>라는 題目的 다음같은 平壤發 國外短信을 실었다.

南北赤十字社 本會談이 開催되었던 서울에서 돌아온 北韓赤十字社 代表團의 記者會見 資料가 이곳에서 公開되었다.

北韓赤十字社 代表團長 김대희는 代表團은 부과된 과제를 완수했으며 第二次 會談에서는 前번 會談의 諸成果가 鞏固化되었다고 聲明했다.

김대희는 北韓代表團의 本會談의 다음 諸段階에서 좋은 結果를 成就할 目的으로 努力하겠는 決意를 表明했다.

10月18日 모스크바 放送은 南韓의 戒嚴令을 事實報道하고 그것은 政府에 對한 學生들의 不滿의 成長에 依해 招來된 것이라고 관측자들의 見解를 引用 說明했다. 10月19日에도 朝鮮中央通信을 引用한 報道放送이 있었다.

10月19日字 "프라보다"紙는 南韓의 戒嚴宣布에 對해서 事實 報道와 함께 다음같은 平壤의 諸新聞의 解説을 引用한 18日號 끌류치코프 特派員의 짧은 記事를 실었다.

南韓에서는 어제부터 戒嚴狀態가 宣布되었다. 朴正熙의 命令에 依해 憲法의 몇몇 條文의 効力이 停止되었고, 國會가 解散되고 모든 政黨과 政治的 性格을 띤 集會과 示威行動이 禁止되었으며 大學들이 閉鎖되었고 出版物에 嚴格한 檢閱이 設定되었다. 警察은 令狀 提示없이 南韓市民을 逮捕할 權限을 받았다. 서울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導入되었다. 國會, 政府 및 其他 重要機關, 新聞社 放送局 建物들은 空軍隊 및 特殊部隊에 依해 占領되었다.

라디오에 依해 放送된 朴正熙의 南韓人民에 對한 聲明에서는 非常狀態의 導入은 南韓의 安全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國際情勢의 諸變化와 아울러 可能的한 社會的 無秩序의 發生을 予防할 必要性에 依해 招來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의 統治者는 이러한 手段들은 全國民의 團結을 이루고 南北對話의 <強化>를 爲한 國民



的 諸力量의 組織化를 促進하기 爲한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그는 非常手段은 나라의 平和的 統一의 達成과 南韓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體制의 強化를 指向하는 것이라고 聲明했다. 그러나 北韓의 新聞들이 報道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에 依해서 取해진 非常手段은, 南韓에 있어 當局이 人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証言하는 것이다. 그들의 行動은 民主主義的 諸權利와 自由의 供與를 要求하는 南韓住民에 對해 壓力을 加하려는 目的을 가진 것이다.

平壤의 新聞들은 그러한 行動이 人民의 平和的 祖國統一에 對한 志向을 反對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北韓은 南北共同宣言의 合意事項 實現과 나라의 統一을 爲한 모든 努力을 계속할 것이라고 強調하고 있다.

10月20日字 「이즈베스찌야」紙도 南韓의 戒嚴宣布에 對해 거의 同一한 報道를 했고 東京에 있는 野黨指導者의 말, 朝聯系新聞의 主張을 덧붙였다.

10月28日字 「브라보다」紙는 赤十字社會談에 對해 다음같이 報道했다.

平壤 27日號 다스通信

北韓 首都에서는 北韓 및 南韓 赤十字社 代表團의 第三次會談 修了에 關聯하여 記者會見이 열렸다.

記者會見에서 發言한 北韓赤十字社 代表團長 김태희는 이번 會談은 議事日程의 項目들의 具體的 討論의 첫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北韓에 依해서 提出된 提案은 分割된 나라의 具體的인 現狀과 朝鮮人民의 民族的 宿望을 올바르게 反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는 南韓과 北韓의 赤十字社 代表團의 諸提案 사이에는 顯

著한 斷絶이 存在하지만, 우리 代表團은 交渉의 進行過程에서 이 斷絶이 縮小되기를 希望하며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하여 積極적으로 交渉을 進行시키기 爲에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月23日 모스크바 放送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南北赤十字社 第四次 本會談에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住所와 生死與否를 알아내기 爲한 共同機構 設置에 合意했고 同機構設置에 對한 具體的 方案은 金曜日(24日) 前으로 實務委員會가 提出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蘇聯側의 報道는 南北調節委員會의 움직임에 對해서도 亦是 簡單하다.

10月12日 모스크바 放送은 오늘 南北調節委員會 第一次 會議가 板門店에서 進行되었으며 北韓의 박성철 內閣第二副首相과 南韓의 李厚洛 情報部長이 兩側 代表團을 各々 引率했다는 事實報道를 하고 北韓의 努力으로 7.4共同聲明에서 同委員會 組織에 合意했고 兩側이 敵對的 活動을 中止하고 平和的 統一을 模索하도록 同意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0月13日字 "이즈베스키야"紙의 <第一次 會議>라는 題目的 記事 內容은 다음과 같다.

10月12日 板門店에서 南北韓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一次 會議가 開催되었다.

北韓側에서는 共同委員長の 이름으로 박성철 內閣 第二副首相이, 南韓側에서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參席했다.

11月5日字 "프라보다"紙의 <合意가 이루어지다>라는 題目的



記事는 다음과 같다.

平壤 4日發 이스통신

이곳에서 開催되었던 南北韓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二次 會議에서 兩側은 <南北韓調節委員會의 構成과 權限에 對한> 合意書에 署名하였다.

合意書에는 調節委員會는 1972年 7月4日字 南北共同聲明의 諸原則에 立脚하여 나라의 再結合에 關한 諸問題의 調節을 志向한다고 말하고 있다.

南北韓調節委員會의 機能에는 特히 나라의 平和的 再結合의 實現과 關聯된 諸問題, 南北韓의 諸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 間의 広範圍한 政治的 交流을 保障하는 諸問題, 南北間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交流의 問題의 討議 및 決定이 包含된다. 委員會는 南北間의 緊張緩和, 軍事的 衝突의 予防 및 軍事的 敵對狀態의 排除, 對外政策에 있어서 南北韓에 依해 合意된 政策 採択의 諸問題도 또한 解決해야 할 것이다.

合意書에는 調節委員會의 構成 및 活動 節次가 規定되어 있다. 委員會는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會合하여야 하며 必要한 境遇에는 板門店에서 會合할 수 있다.

11月30日 모스크바 放送은 南北韓調節委員會 第三次 共同委員長 會議에 參席하기 爲한 北韓의 박성철 第二副首相 一行의 서울 到着을 알리고 서울 會談에서는 11月初 平壤에서 合意된 調節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問題를 審議하게 된다고 말하고, 同委員會는 南北韓間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的 広汎한 交流을 保障하는 問題를 審議 解決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同 1 日字 “브라보다” 紙도 北韓 박성철 第二副首相 一行의 南北調節委員會會談에 參席하기 爲해 서울에 到着됨을 報道하고 今番 會談에서는 南北間에 全面的 協調를 맺기 爲한 方針이 採択된 것이라고 述べ었다.

이미 앞에서 7.4 南北共同聲明 發表 直後의 蘇聯側의 反響을 大略 綜合한바 있거니와 朴正熙大統領의 10月維新 宣言發表 以後 11月末頃까지의 報道들을 全部 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蘇聯은 南北接觸에 對해 肯定的이다. 自主的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南北韓의 接觸은 그 外勢排除의 主張에도 不拘하고 美. 蘇. 中. 日 4大強國의 勢力이 各己 自體의 影響力을 定着시키려고 하는 韓半島에서, 中日에 앞서 確立한 美蘇의 地位와 그들의 平和 共存 政策에 依한 積極的으로는 合意 範圍의 暫進的 擴大에, 消極的으로는 既存 勢力關係의 不變更 方向에 有利한 것으로 보고 있다. 卽 現狀維持 내지는 圖定化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것 같다.

둘째로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2個의 國家의 存在를 現實的으로 認定하고, 兩者間의 軍事的이 아닌 平和的 交流 擴大에 依한 어떤 安定狀態의 定着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蘇聯은 南北의 各分野의 交流가 果積된 障礙와 오랜 歲月이 만들어 놓은 넓고 깊은 斷絶이 消滅되려면 적지않은 일을 해야하며 긴 時日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로, 蘇聯은 南北接觸에 關해 北韓의 主導性을 宣傳하고 그 路線을 支持하고 있다. 偽裝된 北韓의 平和宣傳攻勢가 隨時로 外觀을 바꾸어 南韓의 赤化를 노려왔으며, 그것이 南北의 障壁을 풀



는 에 何等의 貢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分명한 事實이었음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7.4 共同聲明에까지 이른 接觸의 모든 主導性과 努力을 金日成의 그것으로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 蘇聯은 駐韓美軍撤収에 對해서 北韓의 主張을 支持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接觸에 對한 北韓의 隱蔽된 基本態度 즉 南韓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鬭爭의 鼓舞 激化=赤化革命 煽動의 한 口實으로서 自身들의 武力에 依한 南侵 赤化 政策의 產物인 美軍駐屯을 美國의 侵略政策의 그것으로 歪曲 宣傳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蘇聯은 對南韓 論調에 있어 意識的인 修正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勿論 理念面이나 政策面에 있어서의 非難은 如前하다고 하겠으나 大韓民國政府 自体나 政府要人들에 對한 侮辱的인 呼稱과 用語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만으로 速斷하기는 어렵겠으나, 그것은 確實히 蘇聯의 對韓國 姿勢의 어떤 變化를,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希望的인 可能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徵候라고 생각된다.





## VI . 南北接觸과 關聯 , 予想되는 蘇聯의 對韓政策 展望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變遷에 對해서는 이미 第III章에서 살펴 보았다. 모든 時期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이 結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評價되었던가는 別問題로 하고 늘 慎重한 利害打算에 立脚한 當時의 國際關係의 現況에 關한 認識과 將來에 對한 展望에서 決定되었던 것이라면 現在의 國際關係 그리고 韓半島 周辺의 列強의 勢力關係의 現況은 蘇聯의 對韓政策 決定의 主要한 要素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觀點에 선다면 蘇聯의 對韓政策은, 넓게는 蘇聯의 世界政策, 좁게는 對亞細亞政策의 배두리 안에서, 그리고 亞細亞에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진 美國 中共 日本等 強大國과의 關聯性에서 檢討되고 展望되어야 할 것임이 當然하다. 따라서 韓半島를 둘러싼 4強의 對韓政策의 正確한 再檢討는 蘇聯의 對韓政策을 展望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先行되어야 할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첫째로, 美國의 對韓政策은 한마디로 表現에서 韓半島의 南半에, 最少限 親美的인 政府를 維持한다는 것으로 끝날듯 하다. 韓半島에 民主的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는 可能性이 蘇聯軍事力을 背景으로한 共黨主義者들의 圍執으로 消滅하자 美國은 大韓民國 建立에 主動的 役割을 했고,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正式으로 承認했으며 若干의 軍事援助도 提供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當時의 韓國政府 要人들의 希望이나 豪言과는 너무나 距離가 먼 그들의 慾望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도 微弱했었다는 것은 이미 旧聞에 屬하는 事實이다.

東西冷戰의 產物인 韓國戰爭中, 美國은 UN軍의 主力으로 參戰했  
을 뿐만아니라 莫大한 軍事・經濟援助를 提供했으며 UN에서의 影  
響力을 行使하여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을 創設시키기도 했다. 中  
國大陸에서의 蔣介石政府의 敗北는 美國의 東北亞細亞의 唯一한 橋  
頭堡 防衛 意慾을 拋棄시키는 듯이도 보였다. 그러나 韓半島 全  
체가 蘇聯의 影響下에 들어갈 境遇 그것이 日本基地에 對한 直接  
的인 威脅이 되리라는 見解는 美國으로하여 翻意케한 것이었다.

UN軍과 中共・北韓共黨軍 사이에 休戰協定이 成立된 後, 美國은  
韓美相互防衛條約 締結로 大韓民國에 防衛協力을 約束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外部의 武力攻擊이 있을 境遇에만 發動되는 것으  
로 大韓民國의 對北韓 攻擊 軍事行爲에 對한 支援은 排除된다는  
것을 分明히 한 約定이었다. 休戰後 現在까지 繼續하고 있는 美  
國의 對韓 軍事 및 經濟援助는 對共戰略上의 前哨基地로서의 韓國  
이 政治的 安定과 經濟的 自立 위에서 그 防衛機能을 遂行하기에  
必要한 最少限에 그쳤다.

韓半島에서의 紛爭 再發을 極力 막고 現狀을 維持하기에 注力해  
오던 美國은 그 對中共包圍政策을 對中共接近政策으로 轉換함에 따  
라 軍事的 介入을 最少限으로 줄이면서 韓半島에서의 分斷狀態의  
安定을 最大限으로 補強하려는 方向, 南北韓이 平和적으로 共存하기  
를 바라며 統一을 爲한 接近과 交流는 勸奨하나 그 具體的인 方  
法은 韓國人에게 맡기는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하여 南北韓間의 紛  
爭抑制과 平和共存을 爲한 秩序設定을 構想・推進하고 있는 듯하다.

以上을 要約컨대 美國은 南韓이 繼續 美國의 影響下에 있는 것  
만으로 滿足하고 그 以上은 介入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現在의  
負擔까지도 可能的 限 早速히 減少시키려는 意圖인 것이다. 따라



서 美國은 南北韓間의 接觸이 더욱 擴大發展되어서 各己 自体의 基本的 政治秩序를 維持하면서도 敵對意識과 敵對關係를 暫次 解消시켜 彼此의 軍事力이 마침내 攻擊意圖 拋棄의 限度에까지 이르기 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게로, 中共은 韓國戰爭에 있어 北韓冒險主義者들의 失敗를 메꾸고 그들의 勢力範圍 維持를 可能케하기 爲에 大兵力을 이끌고 介入하므로서 北韓에 對한 影響力을 가지게 되었으며 韓半島 問題에 公然히 關与하게 되었다. 더욱이 中共이 休戰協定 署名國이라는 立場과 스탈린 批判에서부터 始作된 50年代 後半 以後의 蘇聯의 對美 平和共存 政策이 北韓의 바라는 바가 아님이 明白하게 되자 中共의 對北韓關係는 加一層 密接하게 되었다.

對美國關係에서 보는 限, 中共과 北韓은 그들의 軍事戰略에 있어 完全히 一致했었다. 즉 北韓이 自体의 防衛에 對한 韓美同盟體制로부터의 威脅感과 同時에 南韓 赤化 企圖에 對한 最大의 障礙로서의 美國의 存在를 深刻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中共도 亦是 台灣問題와 아울러 自身の 亞細亞 내지 世界舞臺 進出에 對한 美國의 <封鎖政策>을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致命的인 障礙로 看做하고 있었던 것이다.

北韓의 防衛問題에 있어서의 利害關係는 中共이 蘇聯보다 더욱 密接한 것이 事實이다. 萬一 北韓地域이 共産國에서 離脫한다면 그것은 中共의 防衛에 對해 直接的인 威脅이 되겠기 때문이다.

韓國戰爭時 中共이 <抗美援期保家衛國>이라는 主張을 내걸고 參戰한 일이나 61年 北韓과 軍事同盟을 맺고 軍事援助를 強化해온 事實들은 60年代 後半에 北韓이 越南戰爭과 關聯하여 中共의 非協調的인 對蘇聯 態度를 非難한 바도 있기는 하나 北韓 中共間의

그러한 密接한 利害關係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1960年4月 中共의 對蘇公開論爭으로 表面화된 中蘇對立은 1967年6月에는 外蒙古 國境線에서 双方이 各々 師團規模 以上の 兵力을 投入하는 軍事衝突로까지 惡化했다. 蘇聯은 맹크部隊 2個 師團 以上을 投入하여 大戰鬪가 벌어졌으며 中共은 慘敗를 맛보았다. 이 戰鬪의 結果, 中共과 蘇聯의 關係는 從來의 共產圈 内部의 對立關係에서 벗어나 世界的戰略關係로 進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9년에는 黑龍江의 達瑪斯끼(珍寶)島事件, 中央亞細亞, 國境 衝突事件等 8回나 師團規模 以上 兵力의 衝突이 일어났다.

英國의 戰略研究所는 1971年9月에 發表한 年間報告에서 中蘇兩國이 國境線에 對峙시킨 兵力은 各々 33個師團이라고 했으며, 中共首相 周恩來는 百萬 大軍이라고 했다. 또한 蘇聯은 百基의 中 距離 미사일을, 中共 또한 性能에 있어 비길 것은 못되나 20基를 配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蘇聯國內에서는 軍事專門家들이 中蘇戰爭의 可能性을 論議하기에 이르렀으니 事態는 매우 險惡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中共의 이러한 對蘇全面對決까지도 不辭한다는 姿勢는 韓國戰爭에 있어 美國과의 對決을 서슴치 않았던 態度와 아울러 美蘇와 並立하는 強大國으로서의 自身을 世界舞臺에 浮刻시켰다. 國際社會에 끼어들려는 中共側의 現實的 政策과 中共을 國際社會의 맞아들이려는 國際輿論의 合致는 美蘇兩極時代에 終末을 짓고 美中蘇 三極時代의 開幕을 보게했다.

1971年の 美中共 關係改善 努力 表面化와 때를 같이하여 中央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 南北韓 共存 및 關係列強의 共存을 模索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轉換하였다.



敵對關係를 解消시킴으로써 美國과의 共存關係를 樹立해야 하는 中共은 우선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國과의 敵對關係를 終結시키는 試圖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中共은 韓國戰爭의 終結 措置로서 平和條約을 締結하여 南北韓關係를 調整하므로써 紛爭의 再發을 防止하고 南北韓의 平和的 共存을 制度的으로 確保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結果적으로 韓半島를 둘러싼 4大強國의 勢力均衡에 立脚한 共存關係를 定着시키려는 試圖가 될 것이다. 南北韓의 平和的 共存關係는 日本의 武裝強化와 北韓의 軍事的 對美依存關係 強化를 不必要하게 할 것이며 韓國戰爭 終結措置는 北韓의 地位를 合法化하는 同時에 駐韓UN軍의 撤収와 UN韓國統一復興委員會 解體의 理由가 될 것이며 北韓에 對한 自身의 影響力이 強化될 것으로 打算되기 때문이다.

세게로, 日本은 韓國과의 國交를 正常化한 後 그 經濟的 力量을 바탕으로 急速度로 韓半島에 進出에 오고 있으며, 1969年末 以後로는 韓半島問題에 對해서 公式的인 利害關係國으로서의 発言權을 增大시키고 있다.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과 直結된다>고 發表된 日本의 公式見解는 韓美日三角協力體制 내부리 안에서 韓日間의 安保協力關係를 樹立한다는 것이 아니라 南北韓과 同時에 經濟關係를 擴大하므로써 韓半島의 對日敵性化를 막고 經濟面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競爭을 利用하여 實利를 얻는 同時에 韓半島 全体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理解된다.

日本은 美·蘇·中共의 韓半島 現狀維持政策에 同調할 뿐만아니라 南北韓의 分斷狀態를 固定化하여 雙方을 同時에 UN에 加入시킬 것을 主張해 왔는데 그것은 分斷狀態의 固定으로 韓國의 強大化를 막고 南北韓과 外交적으로 等距離를 維持하면서 그들의 經濟的 競

爭의 몸바구니에서 自身の 國家的 實利를 追求하자는 心算이다.

그러나 韓半島 周辺 強大國들이 韓國戰爭의 終結措置의 範圍를 넘는 어떤 새로운 秩序의 樹立을 爲에 共同努力을 展開한다면 日本은 積極적으로 거기에 參與할 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根拠를 著々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째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蘇聯은 1950年代 初 北韓 共產政權의 武力에 依한 南韓 赤化統一을 使喚·支援하여 独占적인 影響力 獲得을 꾀했다가 失敗하자 美國의 對韓政策과 類似한 勢力均衡政策으로 轉換하여 大體로 現狀維持의 姿勢를 取해 왔다고 보겠다.

특히 中共과의 關係가 大規模의 武力衝突에까지 惡化된 昨今, 韓半島에 關聯하여 緊張을 高潮시켜서 美國이나 日本을 刺戟하는 行動을 取할 余地가 없다. 이와같은 認識의 內容을 몇개의 項目으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 美國을 刺戟할 危險性이 있는 모든 行動을 삼가고 있고 또 삼갈 것이다. 1950年の 經驗으로 蘇聯은 武力使用에 依한 赤化統一 方式을 現今의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狀態에서는 가장 實現性이 稀薄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는 것 같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새로운 戰爭挑發은 共產側에 有利하게 進行中인 美國의 亞細亞地域으로부터의 軍事的 撤収를 遲延시킬 뿐만 아니라 美國軍事力과의 直接的 衝突의 危險性을 完全히 排除하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極度의 平和를 享樂하고 있는 日本의 本格的 再武裝을 促進시킬 危險性까지도 充分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蘇聯이 中共과 더불어 對北韓 軍事援助를 1971年末로 停止했다는 報道는 全적으로 事實이 아니라 하더라도 充分히 理由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蘇聯은 金日成政權에 對한 影響力을 最大限으로 發動시켜 長期的이며 政治的인 赤化統一方式 採択을 容容하고 또 要求할 것이다. 中共과의 紛爭의 激化가 北韓政權의 向背를 無常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따라서 蘇聯의 對北韓 影響力에 制約이 생겼으리라는 推測은 根拠가 있으나 美軍의 後退를 円滑하게 促進시키고 日本의 再武裝을 觸發하지 않는 効果的인 政策이 偽裝 平和攻勢라는 것은 北韓에 依해서도 쉬이 納得될 수 있는 것이다. 美軍의 南韓駐屯이 그들의 所謂 統一課業 遂行의 最大의 障礙이고 日本에 있어서의 軍國主義의 再生이 그들의 最大의 警戒 對象이며 韓國의 反共 姿勢의 弱화가 그들의 最大의 必要條件이라면 戰爭準備를 끝냈다고 杜談한 그들로서는 效果를 期待할 수 있는 平和攻勢 勸誘는 首肯할만한 것이며 이러한 根拠에서 蘇聯의 肯定的 作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3. 蘇聯은 北韓이 對中蘇關係에서 中立的이고 對美日關係에서 平和的이며 對韓國關係에서 妥協的인 限, 外交面에서의 北韓 支持와 軍事・經濟面에서의 勢力均衡上 必要하다고 보는 可能的 最少限의 援助는 繼續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機會主義的인 中共傾斜 態度나 蘇聯의 實利를 害칠 對美・對日 交流 傾向이 두들어지게 나타나면 問題는 달라질 것이다. 蘇聯의 對中共關係는 其實 對台灣關係의 改善을 打診할만큼 틀어질 수 없을 程度로 惡化되어 있는 것으로 蘇聯의 對外關係中에서의 重要度로 보아 北韓의 中共傾斜는 境遇에 따라 直接的인 對蘇 敵對行爲로 看做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中共과의 對立에서 優越한 影響力을 가지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므로 美國 日本의 對北韓 接觸보다도 對

大韓民國 接觸이 遲延되고 있는 것이다. 現今의 脫理念的 關係의 趨勢나 列國의 外交關係 設定의 慣例 特히 南北共同聲明의 名分으로 보아 蘇聯과 大韓民國 사이에는 關係改善을 못할 理由는 거의 없는 것이다.





## Ⅷ. 우리의 對策

첫째로, 對蘇 宣傳을 大幅 擴大強化해야 할 것이다.

### 1. 放送의 強化

筆者가 알기에 우리의 對蘇 宣傳은 若干數의 周波에 依한 簡單한 國內外 消息과 時事解説이 混하여 30分 程度로 每日 2回 反復 放送되고 있을 뿐이다. 勿論 없기보다는 낫다. 그러나 宣傳의 效果가 그것으로 充分치 않다는 것은 너무나 分明하다.

放送은 더욱 內容도 補強하고 多彩로운 構成으로 많은 時間 反復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用語와 音聲은 蘇聯人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어야 하겠다.

### 2. 宣傳冊子の 配布

近來 蘇聯人들은 集團으로 海外 觀光旅行을 나올만큼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發展相과 文物을 紹介하는 小冊子쯤은 그런 사람들을 對象으로 만들어질만도 하다. 勿論 對象을 制限할 必要는 없다.

南北接觸의 進行은 詳細하지는 않더라도 蘇聯國民에게도 그때그때 알려지고 있다. 南北接觸 開始를 促求하는 누차의 大統領談話, 紀念辭, 關係人士들의 聲明, 要領있게 記述한 進行事項 等等, 이것 또한 우리의 眞實性을 알리는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蘇聯에 關한 研究活動을 大々的으로 勸獎해야 할 것이다.

### 1. 研究費 支給

各分野에 걸쳐 蘇聯의 該當 分野 研究者들에게는 研究費를 支給하는 同時에 우리의 關係人士들로 하여금 研究次 海外에 나와있



는 蘇聯 學者는 勿論, 關係人士들과의 廣汎한 '接觸을 勸奨하고 書信連絡과 相互 招請의 機會와 可能性을 保障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北韓이 美國과 相互 門戶를 열려고 하고 있는 現今 우리가 蘇聯과 相互 門戶를 開放 못할 理由도 없거니와 開放하지 못한다면 이미 한걸음 뒤지게 될 것이다.

## 2. 專門家의 養成

必要한 分野의 蘇聯專門家들 養成하기 爲하여 政府는 一定期間 財政的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受益者 負擔은 自由社會의 原則이다. 國防을 爲해 國費로 職業軍人을 養成하고 特定 分野의 教育에 國費를 支給하듯이 政府는 蘇聯專門家 養成을 爲해서 一定期間의 財政的 支援을 해야 한다.

세계로, 對蘇接近이 可能한 民間團體가 組織되어야 할 것이다.

## 1. 러시아語文學會

現在 우리 나라에는 大學에 러시아語 專攻學科 하나, 初歩的인 러시아語 講座가 서울大, 高麗大, 陸士, 海士의 네 곳에 있다.

外國語大學의 露西亞語科는 이미 259名의 卒業生을 내고 있으나 지난날의 社會的 需要의 過少로 因해 大部分은 專攻과 關係없이 就業에 버렸다.

한편 러시아文學에 關해서는 이미 相當한 分量에 이르는 代表的 古典들이 번역 出版되어 있다. 蘇聯文學은 極히 制限된 作品만이 紹介되어 있으나 이것도 世界的인 名聲을 얻은 作品들부터 漸次 紹介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極히 少數의 人士들이 번역활동을 하고 있으나 語文學研究會를 組織하기에 不足한 人員은 아니다.

그러한 모임도 組織되어 모임의 資格으로 對蘇接觸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 2. 研究所의 育成

研究所의 育成은 個別的인 研究者에 對한 支援과는 別途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所의 研究事業은 蘇聯의 該當 研究所와의 共通의 關心에 基礎를 두고 交流가 可能한 課題를 優先順位로 推進되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創意性을 發揮할 수 있는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이 要求되는 것이다.

예컨대, 政府의 保障을 받을 수 있는 機關 或은 團體로 하여금 蘇聯에 初步的인 經濟交流를 試圖해볼만 하다.

### 1. 對蘇交易研究推進機關

現在 우리나라는 事實上 적지않은 商品을 間接的으로 蘇聯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또 政府의 貿易振興政策에 따라 商品 展示會도 가끔 열리고 常設 商品展示館도 여러곳에 開設되어 있다. 따라서 蘇聯 貿易 担当者들은 우리 商品의 優秀性이나 直接 交易하는 境遇의 利點도 充分히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公式去來가 바람직하나 非公式去來부터 시작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蘇聯이 매우 利得을 얻는다면 굳이 不恥하지도 않을 것이다. 專門的인 推進方法 研究와 實踐機關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民間貿易推進團體育成

類別나계 른 利得은 예로 사람들을 非常한 冒險까지도 不辭하게 하는 것이다. 政府는 特定의 團體에 對共産國 交易을 許可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筆者가 생각하기에 団体건 個人이건 事前 檢討는 勿論 必要한 것이지만 選定된 極少數의 民間團體에 身分保障과 實踐에 따른 特別賞與制度로 考慮함이 더욱 效果的이 아닐까 한다. 어떠한 形態로든 우리의 깃발 밑에서의 交易路가 速히 풀려야 한다.

다섯째로, 日本이나 美國의 對蘇經濟交流에 部分的으로 끼어드는 方法도 可能할 것이다.

### 1. 初歩的인 技術者 供給

現在 西伯利亞 開發은 蘇聯의 急先務中の 하나로 되어 있으며 日本과의 사이에는 이미 몇가지 事項에서 合意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에 있어서의 人力調達問題는 至難事이므로 우리는 初歩的인 技術者 供給을 提議할 수 있을 것이다.

### 2. 無技術 勞動力 供給

無技術 勞動力의 調達は 日本의 境遇는 더욱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이므로 우리의 立場은 더욱 有利한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共產國들의 經濟交流 方式으로 보아 이를 爲해서는 日本의 親蘇的 라인과의 接觸이 必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日本의 對南北韓 等巨離外交方針에 對해서는 우리는 既定事實로 認定하고 細心한 注意를 해야 할 것이다.

## 参 考 文 献

Alexander Werth, *Russia: Hopes and Fears*, Penguin Books Ltd. 1967.

Brzezinski, Zbigniew, *Between Two Ages -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 The Viking Press, Inc., 1970

Dulles, John Foster, *War or Peace*, 1950

Harriman, Averill, *America and Russia in a Changing World*, Doubleday & Company, Inc., 1971

Miller, J.D.B. *The Politics of the Third World*, Oxford Univ. Press, 1966

Violet Conolly, *Beyond The Urals Economic Developments in Soviet Asia*, Oxford Univ. Press, 1967.

日本国際政治学会編。 中ソ対立とその影響。有斐閣。 1964.

横二郎。 日ソ沿岸貿易-シベリヤにかける橋。時事通信社。 1972.

共同通信社。 世界年鑑 1972年版

### 〔 雑 誌 〕

政経研究 1972年 8.11.12月号

国際問題 1972年 5. 8. 9. 10. 11. 12月号

### 〔 新 聞 〕

프라보다 1972年 7月 - 11月号호

이즈베스키야 1972年 7月 - 11月号호



## 参 考 文 献

Alexander Werth, *Russia: Hopes and Fears*, Penguin Books Ltd., 1967.

Brzezinski, Zbigniew, *Between Two Ages - America's Role in the Technetronic Era-*, The Viking Press, Inc., 1970

Dulles, John Foster, *War or Peace*, 1950

Harriman, Averill, *America and Russia in a Changing World*, Doubleday & Company, Inc., 1971

Miller, J.D.B. *The Politics of the Third World*, Oxford Univ. Press, 1966

Violet Conolly, *Beyond The Urals Economic Developments in Soviet Asia*, Oxford Univ. Press, 1967.

日本国際政治学会編。 中ソ対立とその影響。有斐閣。 1964.

横二郎。 日ソ沿岸貿易-シベリヤにかけの橋。時事通信社。 1972.

共同通信社。 世界年鑑 1972年版

### [ 雑 誌 ]

政経研究 1972年 8.11.12月号

国際問題 1972年 5. 8. 9. 10. 11. 12月号

### [ 新 聞 ]

프라브다 1972年 7月 - 11月号

이즈베스키야 1972年 7月 - 11月号